



에너지여건 변화와 동북아에너지협력체 발전 전략

2007. 10. 24

산 업 자 원 부
에너지자원정책팀장
도 경 환

목 차

- I.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
- II. 동북아 에너지여건 변화
- III. 동북아 에너지협력 현황
- IV.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발전 전략

I -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



1. 생산 소비 상호 보완적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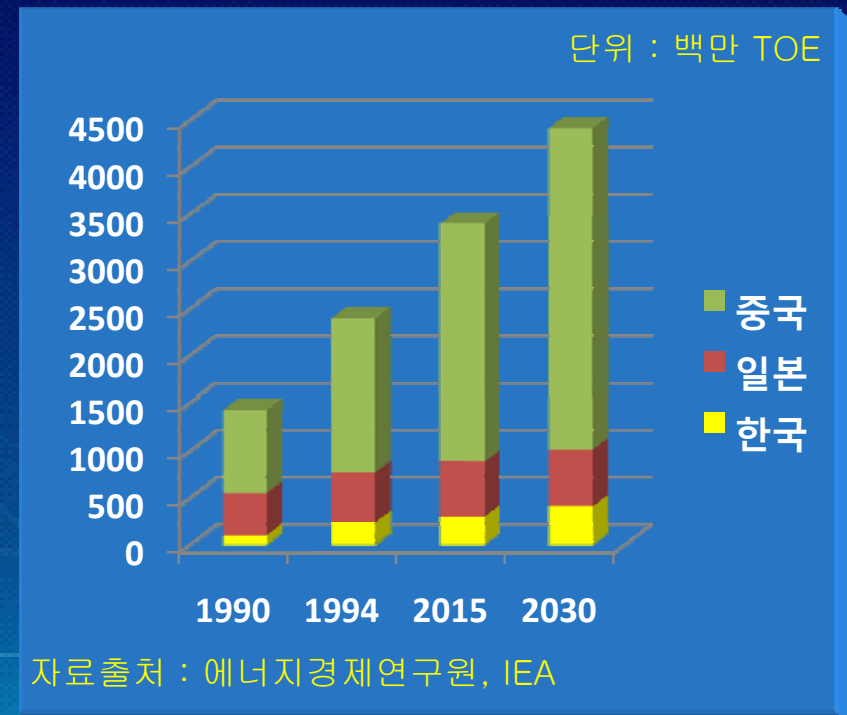
러시아의 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

	확인매장량	비중	R/P 비율
석유	795억 배럴	6.6%	22.3
천연가스	47.65 TCM	26.3%	77.8
석탄	1570억 톤	17.3%	500년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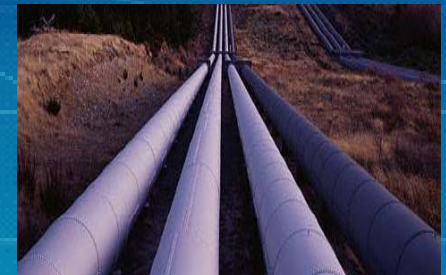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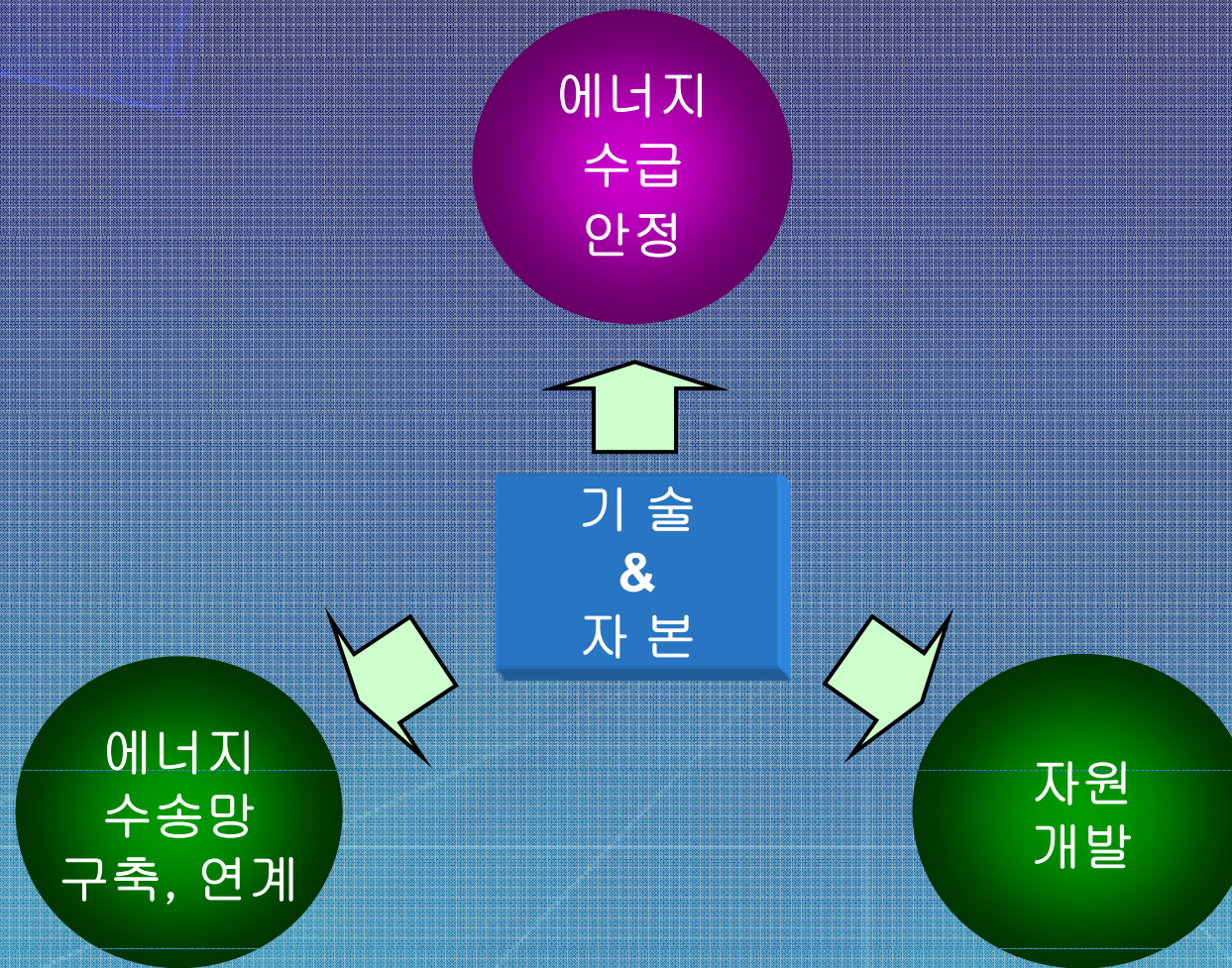
자료 출처 : BP



한 · 중 · 일의 에너지수요 급증



2. 기술 자본 협력 기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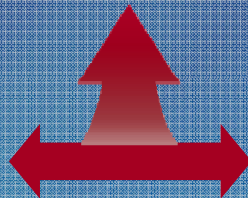
3.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공동 번영

동북아 지역의 “평화와 번영”

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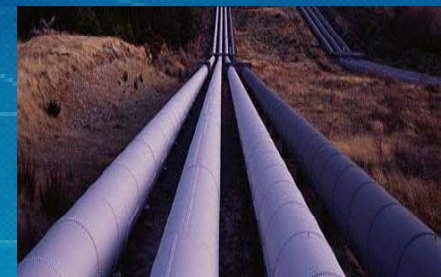
한국, 중국
& 일본

자본
시장
기술



북한, 몽골
& 러시아

에너지자원



II - 동북아 에너지여건 변화



1. 긍정적 여건 변화

긍정적 여건 변화

- 동북아 역내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
 - ➡ 북핵문제 관련 6자 회담 타결 및 남북 정상회담 성사로 역내 평화체제 구축기반 조성
- 러시아의 동부가스프로그램 발표
 - ➡ '07.9.7,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흐리스첸코 장관이 승인, 발표
 - ➡ 가스수출시장 다변화: 러 전체 가스 수출 대비 아-태 지역 가스수출 비중 30% 증대
 - ➡ 3개 노선 가스관 건설
- 중국의 동북지방 발전계획 발표
 - ➡ '07.8.20, 중국 정부가 입안하여 발표한 종합적인 중국 동북지방 활성화계획
 - ➡ 파이프라인 건설, 대경 유전 추가 개발 등 에너지 개발 계획 포함
 - ➡ 중국 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의 중요성 인식

2. 부정적 여건 변화

부정적 여건 변화

- 자원민족주의 강화(러시아)
 - ➡ 국영기업의 민간업체 인수 및 해외기업으로부터의 지분 인수(유코스, BP-TNK)
 - ➡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 강화(지하자원법)
- 생산국 간 결속력 강화 가능성(가스-OPEC)
 - ➡ '01 발족한 천연가스 수출국 모임이 가스 카르텔로 발전할 가능성
 - ➡ 러시아 천연가스자원 개발 및 교역에 제한요소가 될 가능성
- 생산국-소비국 간 신뢰 저하
 - ➡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정치적 무기화: 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('06.11)
 - ➡ 중국-러시아 간 가스수출가격 협상 난항으로 협력 지연
- 구매자시장(buyer's market)에서 판매자시장(seller's market)으로의 전환

Ⅰ. 동북아 에너지협력 현황



1. 에너지협력체 현황

SOC(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협의체, '05.11)

- 동북아에너지 상호보완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에 구축
 - ➡ 한국, 중국, 일본 등 에너지 소비국과 동시베리아, 중국, 몽골 등 대규모 자원 부국 공존
 - ➡ '01.6월 제1차 국제동북아에너지심포지엄(서울)에서 한국이 제안함
- 연 1회 **SOC** 회의와 2회의 에너지 계획/정책 실무그룹 개최 및 워크숍 개최
- 국가간 에너지 시장 정보 공유, 에너지 정책 공조, 에너지사업 투자환경 개선 등
- 한국, 북한, 러시아, 몽골이 회원국이며, 일본, 중국(옵저버)
- 제3차 **SOC**가 '07.12월 제주에서 개최 예정
 - ➡ 구체적인 협력사업 개발을 위해 Government-Business Dialog도 개최

1. 에너지협력체 현황

두만강유역개발계획(TRADP → GTI)

- 두만강유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유엔개발계획(UNDP)의 일환('96~'05)
 - ➡ 참여국 : 러시아, 중국, 한국, 북한, 몽골(차관급)
 - ➡ 에너지협력은 다양한 경제협력 중의 하나
- GTI로 명칭을 변경하고, 사업지역 확대 및 사무국 운영기금 조성에 합의('05)
 - ➡ 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위원회 설립을 검토중
 - ➡ TRADP 제9차 5개국위원회에서 GTI 협정 체결 및 에너지위원회 설립 논의 예정
07.11.15~16, 러시아 블라디보스톡

1. 에너지협력체 현황

5자 에너지각료 원탁회의('06.12)

- 한, 중, 일, 미, 인도 등 5개국 에너지장관회의
 - ➡ 참가국 5개국은 세계 에너지 소비의 48%를 차지
 - ➡ 중국의 제안으로 '06년 12월 중국에서 1차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, 내년 6월 일본에서 2차회의 개최 예정

에너지 다소비국 대화 채널

에너지확보 경쟁 완화

4개 분야 협력방안 제안



1. 에너지협력체 현황

APEC EWG(아시아-태평양 경제공동체 에너지실무그룹, '90)

- APEC 역내 에너지분야 협력을 위해 구성
- 석탄, 효율/절약, 정보/분석, 신재생/기술, 광물/개발 등 5개 그룹
- 최근 에너지 안보, 시장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, 환경, 지속가능개발 분야 협력 강화

ASEAN+3(한, 중, 일, '97.12월 참가 시작)

- SOME(에너지관련 정부고위관료회의, '02.7) 출범
- SOME 하부 EPGG(에너지정책운영그룹)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 모색
-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 등을 통해 활동 강화
-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일본이 주도

2. 에너지협력체 평가

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문제점

- 동북아 지역내 국가간 제도와 이념의 차이가 에너지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존재
 - ➡ 과거 역사, 러-일 및 중-일 간 영유권문제, 어로 문제 등 분쟁요인 잠재
 - ➡ 특히, 동북아 지역은 각 국가의 정치적 기류에 영향을 많이 받음
- 각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이 없음
 - ➡ 에너지 관련 사업 절차 등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
 - ➡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 능력 배양 및 조직 구축
- **APEC, ASEAN+3** 등 지역협력체는 많은 회원국의 이해관계 결집이 용이치 않음
- **SOC**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촉진이 주요 목표임
 - ➡ 중국, 일본의 참여가 요구됨

1.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발전 전략



1. 동북아협력체 발전의 기본방향

기본 원칙

-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역내 국가 공동의 이익 창출
-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 관계 구축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
-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 공동참여로 상호 의존 관계 구축

2. 향후 5개년(2008-2012) 발전전략

단기전략(2008-2009)

ENERFY
Outlook
2007

Gov-
Business
Dialogue

가능한 동북아에너지
협력 연계프로젝트 발굴

1-2개의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:
에너지연계확대를 중심으로
(신규 or 기존연계성의 확대)

NEA의 에너지
협력 중기전략

2. 향후 5개년(2008-2012) 발전전략

중기전략(2010-2012)

- 상호 협력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행
- 우선적으로 구축할 연계망 선정 및 실행 가능성 평가
- 시장 개발 활동 수행
 - ➡ 에너지 제품의 생산, 소비, 운송, 판매 활동 수행
- 에너지 교역 증대를 위한 각국의 정책, 규제, 법적 측면의 조화성 증대
- 동북아에서 수행해지고 있는 여타 양자, 다자 에너지 협력과의 연계활동

3.전망 및 시사점

전망 및 시사점

- 북핵문제 진전, 러시아 및 중국 정부의 관심 고조 등에 의해 동북아에너지협력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
 - ➡ 북한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수송 네트워크 연계사업에 대한 다자간 협의 기회가 높아짐
 - ➡ 특히, 전통적으로 양자간 협력을 선호하던 중국 정부의 새로운 입장 표명
- 동북아에너지협약체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짐
 - ➡ 국가 간 정보교환, 의견조정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한 협의 창구 필요
 - ➡ 각 프로젝트 별 다국간 투자 범위, 조건, 가격 협상 등 구체적 실행을 논의할 협상창구 필요

3.전망 및 시사점

전망 및 시사점

- 기존 **SOC**를 공식 창구로 활성화 하기 위한 준비 필요
 - ➡ 현 국장급에서 향후 장관급 협의체로 발전시켜 SOC의 위상 강화
 - ➡ 현 실무그룹의 활동 영역 확대나 영역 별 실무그룹 신설로 구체적 협의 기반 조성
 - ➡ 중국,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외연 확장
 - ➡ 현재 적극적인 회원국 간 조기에 협력시범프로젝트 성사를 통한 SOC 정체성 확립
- 여타 에너지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연한 국제협력관계 유지

감사합니다.